

이음, 제주

천천히,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TRACK.19



CONTENTS

- 4**
PLACE
제주의 보물
- 6**
PLACE
근대 건축을 통해 바라본 원도심의 어제와 오늘
- 8**
OPINION
코로나 이후 도시
- 10**
PLACE
마을, 놀이로 소통하다
- 12**
PLACE
소통을 통해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마을이야기
- 14P**
PEOPLE
한라산을 오르는 새로운 방법
제로포인트트레일
- 18**
PEOPLE
반짝반짝 제주 많은 사람들
제주도좋아
- 21**
PEOPLE
제주를 재미있게 여행하다
디스커버제주
- 24**
FOCUS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 28**
REPORTAGE
환경과 사람을 이해하는 도시재생
- 31**
ARCHIVE
흑백 사진 속 제주 사람들과 생활 모습
2019년 제주시 원도심 근·현대 사진수집 아카이빙 사업
- 36**
NEWS
작은 건축이 마을을 바꾸다, 김영수도서관
제주 원도심 음식문화 특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제주책방 활성화 프로그램 '식물생활'



“

천천히, 삶을 바꾸다

도시의 패러다임은 개발에서 재생으로 바뀌고 있다. 재생의 대상은 도시를 넘어 우리 삶으로 확장되고, 목적 역시 공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를 위해 새로 만드는 대신 '고쳐 쓰고', 빈 곳을 '채우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빨리빨리'식이 아닌 '차근차근' 천천히 속도를 유지하면서 말이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행복'이 아닐까. 걸어서 10분 거리에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으며,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있다면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다. 이번 '이음제주' 19호에서는 차근차근 천천히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더 나아가 자연과 상생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

발행일 2020년 10월 13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 발행·편집인 부성현
기획·편집·디자인·제작 주드(010-2574-9679) 인쇄 태웅씨엔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
홈페이지 www.jejuregen.org (이음, 제주)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의 콘텐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의 보물

서울에 남대문이 있다면 제주에는 관덕정과 목관아가 있다. 그만큼 제주의 역사와 행정,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관덕정이다. 제주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관덕정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

참고 자료 | 강명숙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연구위원회/건축사사무소 시오, 제주의 광장-관덕정광장의 새로운 모색, 미디어제주.



관덕정 광장 흑백사진, 1993년, 강정호
관덕정 광장은 제주도의 중심으로 예전 분수대와 건물을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념촬영을 하던 명소다.

“

그가 관덕정의 정확한 유래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관덕정’이면 충분했고, 공자묘같은 그 건물이 옛날 세종대 홍화각(弘化閣) 주인인 제주목사가 ‘상무정신(尙武精神)’을 함양하기 위해 세운 연무장이고, 또한 큰문 앞의 돌바닥에 ‘죄인’을 무릎 꿇려 재판 같은 것도 하고, 위정자에 의한 잔학과 살육이 그 앞에서 벌어진 조선시대의 유물이라는 것도 노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다만 노인의 관심을 끈 것은, 아직도 성내에,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에 관덕정만큼 큰 건물이 없으며 또한 관덕정은 ‘옛날’을 전해주는 유일한 건물이라는 바로 그 점이였다.

-김석범의 소설 '까마귀의 죽음' 중에서

”

소설의 내용처럼 관덕정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며 조선시대 이래 제주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또한 원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길을 가르쳐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제주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고 익숙한 국가지정 보물 제 322호다. 관덕정은 시간적, 장소적 역사를 가진 제주의 소중한 건축물이다. 관덕觀德이란 ‘활을 쓰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라는 사자 소이관성덕이射者所以觀盛德也에서 유래했다. [탐라지]에 의하면 조선 세종 30년(1448) 안무사 신숙청이 상무 정신을 함양하고 왜구 토벌을 위해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세워졌다고 한다. 관덕정의 편액은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의 글씨였으나 화재로 손실되어 현재의 글씨는 선조때 영의정을 지낸 아계鵬溪 이산해李山海의 작품으로 청음淸陰 김상한金尙憲이 지은

[남사록]에 기록하고 있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사방으로 탁 트인 개방형 누전 건축물로서 늘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다. 또한 건축사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건물 안쪽 대들보와 그 아래 그려진 십장생도, 적벽대첩도, 대수렵도 등의 벽화는 상당히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관덕정은 제주 목관아의 중심으로서 제주도의 정치·역사·문화·교통의 중심지였다. 1813년 제주가 독립국임을 선언하며 일으킨 양제해의 변과 1901년 천주교의 교세확장과 폐단, 정부의 조세 수탈 등의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이재수의 난, 이후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월 1일 기념행사가 열린 장소였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에도 관덕정은 제주의 중심이었다. 1905년 최초의 오일장이 열려 제주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1980년대에는 관덕정 앞에 분수대가 설치되면서 수확여행, 졸업, 소풍날이 되면 누구 할 것 없이 관덕정 앞 분수대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부모님의 빛바랜 앨범 속에는 관덕정 분수대를 배경으로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은 옛된 그 시절 부모님의 모습이 남아 있다.

500년 역사를 함께 했던 관덕정은 제주 도민의 희로애락을 함께 한 소중한 공간이다. 때론 슬픈 역사의 장이었고 때론 흔쾌히 모여 자연스럽게 놀이를 즐기던 곳. 하지만 세월의 변화 속에 원도심은 점점 쇠락해졌고 관덕정 또한 사람들에게 버려진 공간으로 남아 있다. 제주도 시재생센터는 관덕정 주변 지역을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 살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관덕정 광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덕정 앞거리의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골목길의 가로환경을 개선해 사람들이 걷기 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제주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자 추억을 함께 했던 관덕정을 거닐다 보면 과거와 현재, 사람과 도시를 만날 수 있다. 달리는 차창 밖이 아닌 도보로 관덕정 주변을 거닐다 보면 무심코 스쳐 지나간, 그래서 몰랐던 더 많은 제주의 모습과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PLACE

(구)제주극장

1944년 공연장 시설이 전무하던 제주 지역에 무성 영화와 유랑 극단의 공연장으로 활황하기 위해 관덕정 인근에 설립한 극장이 바로 제주극장이다. 1948년 10월 17일 정식 공연장으로 허가를 받아 공연과 영화 상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각종 예술 단체의 쇼나 군관민위원회, 학생들의 예술발표회 등 모든 공연은 제주극장에서 개최했다. 1954년 35m 영사기를 도입해 외국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1978년 극심한 경영난으로 제주극장은 문을 닫았다.

건립연도 : 일제강점기
제주시 관덕로 2길 11

중앙로 박태훈 가옥

제주의 대표적인 근대무역인으로 불리는 박종실(1885~1966), 1906년 지금의 중앙로 외환은행 자리에 '박종실상점'을 개점해 식료품, 건면포, 철물류 등의 잡화를 판매했다. '제주실업신문대감'(1931)에 따르면 박종실상점의 연간 판매액은 4만 6800원으로 제주도내 1위였다. 당시 일본인들이 상권을 주도하던 시절에 제주 기업인의 업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종실상점을 거점으로 제주상선주식회사(1922), 제주상사주식회사(1935), 제주상운주식회사(1939) 등 3개 회사는 박종실이 직접 설립한 법인회사였다. 제주상선주식회사는 제주자본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해운회사였다. 그는 기업활동 외에도 1957년 제주도민을 위한 배움터인 제주도립도서관을 건립해 제주도에 내놓았다. 박종실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유는 기업가를 넘어 인재를 키워 냈기 때문이 아닐까 한빛길 박태훈 가옥은 제주사람들의 그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다.

건립연도 : 일제강점기
제주시 중앙로 12길 14

건입동 한씨 가옥(주정공장 사택)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지사에서 제주항 근처에 건립하여 운영하였던 주정(酒精) 공장, 이들 일본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입동에 사택이 만들어졌다. 이 건물은 목조건물로 대나무를 가로세로로 엮어 사이사이에 흙을 바른 후 외벽을 세운 후 널판을 덧붙여 마감했다. 밖으로 돌출된 현관으로 들어가면 입구는 복도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지금도 다다미와 신단을 설치한 흔적이 남아있다. 이 주택은 일본 가옥이지만 제주의 바람과 기후 등 제주지역의 풍토를 반영한 일제시대 건축물로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건립연도 : 1936년
제주시 건입동 1106-5

제주시 산지등대

제주시민의 대표적 공원인 사라봉 종턱 언덕 위에 탐라의 관문인 제주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하얀 건물 하나가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해안 절벽과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해안선의 모습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 바로 '산지등대'다. 1916년 10월 무인등대로 처음 점등된 산지등대는 1917년 3월에 유인등대로 변경되었고, 1999년 12월에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등탑을 신설하였고 기존 등대는 83년간 밝혀오던 빛은 멈추었지만 그 옆에서 묵묵히 지켜 주는 형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립연도 : 1916년
제주시 사라봉동길 108-1

동양극장·동문시장

동문로터리 입구에 위치한 동문시장은 실생활에 필요한 온갖 용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1900년대 도시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곳으로 먹고 입고 여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시장 건물 한쪽에는 동양극장이 자리잡았다. 동문시장과 동양극장은 제주 현대건축가 1세대인 김한섭(1920~1990)이 설계했다. 동양극장은 시장보다 먼저 문을 열었다. 그 당시 제일극장, 중앙극장, 제주극장, 시민회관이 제주도민의 집회장소이자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화려하고 신선한 근대식 건축'으로 동양극장이 가세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개발과 시대의 변화 속에 원도심의 문화공간의 기능을 했던 극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대표했던 근대주의 건축인 극장들, 반드시 보존해야 할 유산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건립연도 : 1965년
제주시 동문로 16

중앙로 박씨 초가

제주도내 초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1차 정리가 됐고, 그나마 도심에 남아 있던 초가는 1984년 전국소년체전을 앞두고 정리가 됐다. 박씨 초가는 그 와중에도 살아 남았다. 박씨 초가는 흔히 '박판사네'로 불려왔다. 박 판사는 고故 박창택 판사를 말한다. 그는 초대 제주읍장과 복제주군수를 지낸 고故 박명효씨의 큰아들이다. 현재 박씨 초가는 박명효씨의 둘째 아들 고故 박청우씨의 며느리 안순생 할머니가 지키고 있다. 박씨 초가는 7대째 제주를 지키고 있다. 300년의 시간을 오롯이 품고 있는 박씨 초가는 온전히 남길 가치를 지닌 곳이다.

건립연도 : 1750년 경
제주시 중앙로 14길 15-16

제주시 청사

제주도청사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18일 착공되었다. 당시 제주도가 도청 건물 없이 관덕정에 칸막이를 치고 불편하게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신속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다. 실질적으로는 부산까지 북한군에게 내줄 경우 임시 정부청사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도청사를 착공한 것이다. 준공식에 이승만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밴플리트 미8군 사령관, 백선엽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할 정도로 당시 제주도청사는 상징적인 공공건축물로 2005년 4월 15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 155호로 지정되었다.

건립연도 : 1952년
제주시 이도2동 1176-1

제주시민회관

1964년 건축된 제주시민회관은 한국 대표 건축가인 김태식이 설계했다. 문화시설을 건립할 여력이 없었던 당시 제주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설이었다. 건축물의 기본 구성은 무대와 객석 그리고 중앙의 경기장으로 다목적 문화시설로 활용되었다. 지금은 철골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건축 예산과 기술력이 부족했던 50여 년 전 만들어진 제주 최초의 철골조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주시에 가장 오래된 문화 시설인 시민회관은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제주시는 시민회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 결과 공공도서관, 체육센터 등을 포함한 다목적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건립연도 : 1964년
제주시 이도1동 1700-1

제주화교소학교

1950년 중국 요녕성 장하현의 지주가족 54명이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해상호를 타고 대만으로 가던 중 조난을 당해 그 해 8월 인천에 도착했다. 그 후 다시 남하 하다 완도근처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배가 파손되고, 한국군함이 인도적 차원으로 제주 산지천에 예인하였는데 생존자는 22명이었다. 그 후 배안에서 8년간 시장의 버려진 야채로 연명하는 등 어렵게 생활했다. 그러다 '중국 사람은 중국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화교들이 함께 힘을 모아 1965년 대만정부의 공식 인가를 받아 제주화교소학교를 설립하였다. 78년에 학생수 58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으나 80년대부터 젊은층의 화교들이 제주를 떠나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등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

건립연도 : 1953년
제주시 관덕로 2길 19

근대 건축을 통해 바라본

원도심의 어제와 오늘

낡고 오래된,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하나 둘 사라지고 있는 근대 건축물. 하지만 이들 건축물은 당시 제주도민의 생활과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 원도심에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을 통해 제주의 어제와 오늘을 만나보자.

참고 자료 | 문순덕(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지역의 근대 역사문화 시설 현황과 활용 방안 연구.

김형훈기자, '콘크리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초가는 무척 중요', 미디어제주.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 근대건축 산책, 루아크.

진선희기자, '제주 원도심, 이야기의 발견-6'옛 동양극장', 한라일보.

코로나 이후의 도시

코로나로 인해 생활권과 동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생활권이 우리가 사는 동네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도시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글 김지혜(봄도시 건축사사무소 · 탐구스튜디오 대표 / 서울시 공공건축가)

스페인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건축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학하였다. 2013년부터 탐구스튜디오를 통해 도시와 건축에 대한 강연 및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봄도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해 건축 도시 실무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어릴 때 학교 학급문고 책꽂이에는 어린이 명량소설, 오래된 세계문학책과 함께 '어린이 과학도서 시리즈'류의 책이 한두 권씩 있었다. 그중 가장 좋아했던 책은 20-30년 후 과학기술에 의해 달라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는 책이었다. 미래에는 매일 집 앞까지 조리된 음식이 배송되고 자율주행 차를 타며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 회의는 화상으로 하며 화상으로 교육을 하는 이야기가 삽화와 함께 그려져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더하며 읽곤 했는데 물론 그때만 해도 설마 이런 미래가 20년 후에 올 거라고는 믿지 않았다. 2020년 우리는 만들어진 음식을 새벽에 배송 받을 수 있고,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화상수업과 재택근무는 대부분의 학생과 직장인이 겪는 실제 현실이 되었다. 이런 변화가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오는 것인지 효율적인 것인지를 미처 고민할 여유도 없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불쑥 앞당겨 미래에 진입하게 되었다. 준비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굳

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과학기술이 빠르게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다. 그러면 도시환경은 어떻게 될까? 이미 준비된 기술들로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의 도시와 건축은 그만큼 준비되어 있을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생활 환경은 작게는 거주지로, 크게는 도보권 내의 생활권으로 축소되었다.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으며 대면활동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고립되기 시작했다.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지역사회 환경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적절한 문화 및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람들간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공공시설의 필요가 더 커졌다. 하지만 지금은 감염 우려로 공공도서관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실내공간도 이용하기 어렵고 거주지 지역을 벗어나기도 어려운 요즘,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권 공원을 이야기 한다. 최근 서울시는 사회적 건축-포스트코로나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대상은 베트남 팀 MEOW의 'The Invisible Face'의 공원계획이 수상하였다. '전염병으로 인해 도시의 연결 기능이 중단되고 상실되는 시기에, 공원이 라는 공공장소를 안전하게 향유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제한한 것으로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길들을 산책로로 구성하고 있다. 넓은 면적의 광장에 대규모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산책하는 선형의 공간이다. 이 아이디어는 선형의 공간을 제공하여 감염의 우려를 피하면서도 우리가 자연, 사람과 가질 수 있는 접촉을 최대한 할 수 있다.

선형의 생활권 공원을 새롭게 구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외부 공공공간을 실현하는 방안도 있다. 얼마 전부터 뉴욕시는 주요 상업지역 도로의 차량 진입을 막아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는 '오픈 스트리트' 정책을 시작했다고 한다. 기존의 도시기반을 활용해 코로나 감염 위기에 대처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도로를 차량 중심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제안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보행로를 선형의 공원으로 변화시키는 움직임은 세계 몇몇 도시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지 차량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되지 않고 도시의 활력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거리는 가장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도로망은 물리적 인프라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이기도 하며 이제는 감염병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느슨한 교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제인 제이콥스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첫 챕터부터 가로(street)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그는 굳이 긴밀한 접촉이 아니더라도 도시에서 길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공적 존중과 신뢰의 망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는 우리의 미래를 당겨왔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길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교류하는 방식은 이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고 생활권에서 느슨한 교류나 마주침을 통해 이웃과 심리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거창한 기획과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단지 거리에 벤치 하나를 놓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도시는 좀 더 열린, 따뜻한 공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을, 놀이터로 소통하다

월평마을에는 놀이터가 없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점을 고민하던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아이와 어른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작년 11월 어린이 임시(팝업) 놀이터를 운영했다. 놀이를 통해 마을과 소통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아이들을 위한 진짜 놀이터

아이들은 누구나 탐험가고 모험가다. 어른들은 그네, 시소, 미끄럼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놀이터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다르다. 나무에 밧줄만 묶어 놓아도 놀이터가 된다. 아이들의 눈에는 나무 사이를 밧줄로 연결해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훨씬 재미있고 신기한 놀이기구다. 아이들은 항상 자기만의 길을 찾아 놀이를 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놀이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까? 영국, 독일, 미국의 경우 안전성은 물론, 창의적인 놀이를 제공하는 다양한 놀이터가 있다. 영국 런던 도심의 캔싱턴 놀이터는 인공적인 놀이 기구 대신 흙과 언덕, 바위, 타고 오를 수 있는 나무 등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미국의 아델 네비 공원은 '놀이터는 아이들의 신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해야한다'는 취지 아래 창의적인 놀이터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반면, 한국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놀이터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놀이터는 어른들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정형화된 놀이터로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를 방해할 수 있다. 월평마을 역시 아이들이 놀거나 교제할 수 있는 놀이터가 없었다. '아왜낭목 체육공원'과 같은 공유 공간이 있지만, 놀이 기구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마을의 아이들은 중문이나 서귀포 지역으로 나가 놀 공간을 찾는다.

월평마을에 어린이 임시 놀이터가 생겼어요

놀이터의 부재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마을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유도해야 하는데, 마을 내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없다 보니 신혼부부와 같은 청년계층이 오지 않는다. 또한 부모들이 모여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어렵다. 아이들이 교류하며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

면, 월평마을의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삶의 만족감도 높아진다고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기존 마을 공유 공간인 '아왜낭목' 공간에 임시(팝업) 놀이터를 만들고, 사업의 진행을 참고하여 추후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에 활용하기로 방향을 구체화했다.

작년 8월, 10월에 '놀이 이해 부모 워크숍'과 '놀이 아이디어 전개 워크숍'을 각각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워크숍을 통해 마을 아이들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함께 모색했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0월 26일(토), 27일(일)에는 '놀이 제작 워크숍'을 진행했다. 마을 주민과 아이들이 참여해 아왜낭목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기구를 만들 수 있었다. 나무 사이를 밧줄로 연결하여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 공원 경사를 이용한 미끄럼틀 등, 아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모험 놀이터'가 탄생했다.

드디어 11월 2일, 임시(팝업) 놀이터인 '버섯버섯 아이 따가워 놀이터'를 아왜낭목에서 선보였다. 놀이터의 이름은 아이들이 직접 지은 것으로, 솔방울이 가득한 아왜낭목 공원의 소리와 느낌을 담았다. 마을에서 놀지 않던 아이들이, 놀이터가 생긴 후 놀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공원으로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놀이 기구를 이용하여 놀다가도, 친구들과 함께 흙놀이나 솔방울 놀이와 같은 새로운 놀이를 만들었다. 조용하던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며 활기가 가득 찼다.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 기구가 재미있었느냐는 질문을 하자 "친구랑 놀아서 좋았어요"라는 대답이 많았다. 놀이기구 유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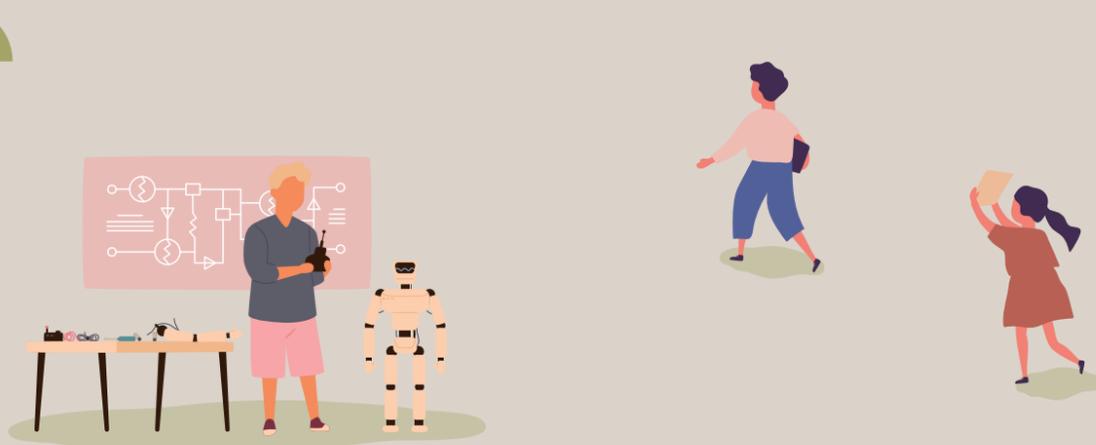
놀이터는 작년 11월 철거되었지만 마을의 문제인 고령화와 아동·청소년 교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놀이 공간 형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소통을 통해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 마을 이야기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이 주제가 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미디어를 매개로 소통하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월평마을의 도시재생 이야기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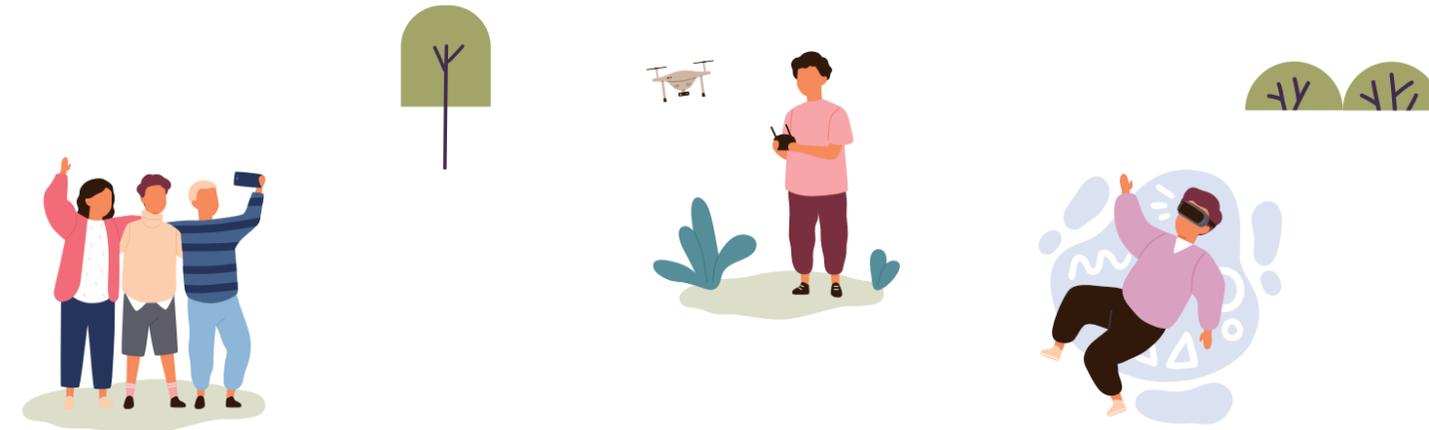


주민이 만드는 도시재생

과거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이고 전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역량강화'와 '지역주민 커뮤니티'를 목표로 로컬 자원을 적극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물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고려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운영 방식이다. 그렇다면 주민이 참여해 성공한 도시재생 사례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까운 일본에서 찾아보자. 일본 후쿠이 현 내의 작은 마을 사바에 시에는 주민들에게 '시장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라는 로컬 활성화 플랜 콘테스트를 10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콘테스트는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바에 활성화 기획안을 응모 받아 선정된 팀에게 로컬 청년을 결합시켜 시의 상황에 적합한 활성화 기획안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에는 시민주역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는 시민의 제안을 토대로 한 12조에 이르는 최상위 조례다. 이 시민 주역조례는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마을'을 선언하고 실제로 노력하겠다고 다짐과도 같은 것이다. 이 같은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마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월평마을 소통 채널, 미디어 놀이터

제주에도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으로 작은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마을이 있다. 바로 월평마을이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된 제주 '월평마을'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미디어 놀이터다. 미디어 놀이터는 마을 내 아동·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월평마을에 미디어를 매개로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마을공동체 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할 인력으로 월평마을 아동·청소년을 소통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자신의 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드론 조종 및 마을 사전 만들기,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미디어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도시재생센터 홍보물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추후 설립될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CB센터)의 청소년 공간 운영에도 접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마을 내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깊이 있게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소통의 창구를 열어 주는 미디어 놀이터 프로그램은 폭넓은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된다.



해발 0미터 제주 앞바다에서부터 출발해 백록담 *1950미터까지 온전히 자신의 두발로만 오른 적이 있나요? 제로의 순간을 경험하고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과정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제로포인트트레일 유아람 대표. 그가 생각하는 온전한 한 걸음의 시작,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라산을 오르는 새로운 방법

제로포인트트레일



제로포인트에서 시작해 해발고도 1950m까지 올라가는 트레킹 프로그램이 매우 흥미로운데, 어떤 계기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어린 시절부터 등산, 트레킹 등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겨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살게 된 이유 중 하나도 한라산 때문인데요, 한라산을 오르고 제주의 숲길을 걸어나가던 중 2013년도에 존경하는 산악인故 김창호 대장님께서 에베레스트를 해발 0m 에서부터 오르신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아 대한민국 최고봉 한라산을 해발 0m에서부터 오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첫 번째 제로포인트트레일(이하 ZPT) 한라산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해발 0m부터 정상까지 동력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 오르는 과정과 정상의 감동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업화를 준비해 2020년 2월에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ZPT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ZPT는 새로운 방식의 트레킹을 제안하는 Sea to summit 프로그램입니다. 한라산은 지금까지 성판악, 관음사 등 중산간지대의 탐방로 입구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이러한 기존의 방식이 아닌 해발 0m 제주 앞바다에서부터 출발해 백록담 정상에 오른 후 성판악 탐방로 입구에 이르기

까지 총 31km를 자신의 두발로 완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단순히 긴 거리를 종주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초심, restart 등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ZPT는 정상의 순간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 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제로의 순간을 경험하고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과정에 진정한 가치를 둡니다. 다시 말해, 정상에 다다르지 못하고 포기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ZPT가 제안하는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ZPT는 흔적을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길 위에 쌓여지는 도전자들의 각기 다른 이야기들의 흔적과 함께 LNN (Leave No Nothing) 캠페인을 통하여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이전보다 깨끗해진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라고 제안합니다. LNN 캠페인은 '아무것도 없이 떠나지 말라, 머무른 자리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라'는 뜻으로 아웃도어 활동 시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물론 이전에 남겨져 있던 것들까지 조금씩 치우는 캠페인입니다. ZPT는 LNN 캠페인을 통하여 걷고 오르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람이 찾을수록 망가지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찾을수록 조금씩 회복되는 제주와 대한민국, 나아가 전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긴 거리를 빠르게 주파하는 육체적인 도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간 길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2014년 처음으로 ZPT를 홀로 시작했을 때 느꼈던 0m부터 시작하는 초심, 다시 시작하는 마음, 한계의 도전, 정직하고 온전한 발걸음 끝에 얻어지는 감동, 도전을 통한 위로와 자신감 회복 등 걷기와 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ZPT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ZPT에 참가 하나요?

ZPT는 다양한 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22세부터 63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제주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도전을 위해 찾아오고 있는데 sea to summit의 로망을 가진 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분, 일상에서 새로운 시작과 다짐이 필요하신 분 등 개인마다 원하는 가치를 위해 다양한 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세가 많으신 참가자 분께서 "더 나이가 들어 나의 무릎이 먼 길 떠남을 주저하기 전에 의미 있는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참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ZPT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참가자마다 자신이 얻고 싶은 다양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로스테이션은 어떤 공간인가요?

제로스테이션은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제로포인트트레일의 공식 운영처이자 '트레커와 여행자를 위한 베이스캠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ZPT 참가자들의 오리엔테이션과 인증 과정이 진행되는 운영처이며 커피와 다양한 음료, 그리고 여행 서적과 아웃도어 매거진이 비치되어 있어 걸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카페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걷는 사람들과 여행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걷는 사람이 텀블러나 물병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시원한 물이나 얼음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근 숙소 등 원도심에 대한 정보와 트레킹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LNN 캠페인 실천을 위한 생분해 쓰레기 봉투를 무상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커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놓아두고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하이커 박스 설치를 통하여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베이스캠프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해안에서 출발하여 정상에 이르는 sea to summit 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제주의 다양한 장소가 ZPT의 출발점이자 운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ZPT가 원도심의 산지천 하구에 자리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지천의 산지포구는 2,000여년 전부터 제주와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접점이었습니다. 내륙은 물론 해외까지 제주로 향하는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산지포구로 드나들 수 밖에 없었는데, 제주로 향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주의 출발점에서부터 대한민국 최고봉 한라산을 동력의 힘을 빌리지 않

고 온전히 사람의 힘으로 오른다면 더욱 의미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원도심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ZPT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얻어 가길 바라나요?

ZPT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ZPT는 이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참가자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 사연이 있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다르니까요.

저는 이점이 더욱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목표와 바람들이 한라산으로 향하는 길 위에 켜켜히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로의 순간을 경험하고 그 시간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목표한 곳으로 정직한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ZPT가 정의하는 재생, 순환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산과 바다에 사람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자연은 훼손되고 망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ZPT의 시각은 다릅니다. 자연을 대하는 인식을 바꾸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오랜 시간 쌓여온 쓰레기를 한 사람이 한 개씩 가지고 오고 백 명, 천 명의 사람들이 한 개씩 치워나간다면 사람이 찾을수록 조금씩 회복해가는 자연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찾을수록 회복해가는 자연을 만들어감으로써 위태로운 자연과 인간의 순환고리를 연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아웃도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ZPT가 어떤 장소로 남길 바라나요?

한계의 도전, 새로운 시작, 현실과의 단절 등 ZPT에 오르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도전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새로운 영감들을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ZPT의 목표나 지향점을 소개해주세요.

제주를 시작으로 내륙 그리고 해외로 ZPT의 가치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길 위를 오르는 사람들의 도전의 흔적을 응원하고 소통의 흔적을 지원합니다. 또한, 길 위의 사람들이 남기는 이전보다 깨끗해진 흔적을 지원하고 확산시켜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과 자신의 나라에서 ZPT를 경험하고 일생에 한번은 ZPT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 정신과 가치가 만들어진 대한민국 제주도로 'ZPT 제주 한라산 오리진 코스'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966년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삼각 측량해 한라산의 높이를 1950.11m로 확인, 이를 공식 고도로 사용해 왔으나, 2005년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측량을 통해 한라산의 높이를 1947.26m로 정정했다.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지로 25(건일동 1136) 2층
 ☞ 운영시간 10:30~19:00
 ☞ 전화번호 064-702-1947



바다에서 재미있게 놀고 싶은 각기 다른 재주를 가진 6명이 모여 만든 재주도좋아. 이들은 자신들이 느꼈던 바다에 대한 감정을 언젠가 태어날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지만 그때까지 바다가 건강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한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재주도좋아의 반짝반짝 빛나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반짝반짝 재주 많은 사람들

재주도좋아



재주도좋아를 만들게 된 배경과 반짝반짝지구상회를 운영하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재주도좋아는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었던 6명의 친구들이 모여 만든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저희 6명은 영상, 유리공예, 목공, 디자인, 공연, 회계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각기 다른 이유로 제주에 내려왔는데 2012년 해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제주에 잠시 머물다 갈 생각이었는데 해녀학교를 다니면서 다들 바다가 좋아졌고 바다에서 자주 놀다 보니 바다 쓰레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놀고 싶은데 바다 쓰레기로 인해 놀지 못하는 환경이 울 수도 있겠다 생각을 다들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가진 각기 다른 재주로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했고 문화와 예술이라는 방식을 통해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고자 재주도좋아라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짝반짝지구상회는 재주도좋아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전시, 워크숍, 공연 등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굳이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워크숍은 바다 쓰레기를 주워와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바다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버려진 쓰레기들이 정성을 다하면 충분히 예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작은 인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마을의 유휴공간에 자리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주도좋아의 활동을 위해서는 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만의 재주가 아닌 여러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를 비롯해 레지던시 공간도 운영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창고 같은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봉성리 감공농장 창고가 비어 있는 걸 보게 되었고 저희가 원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2012년 반짝반짝지구상회란 간판을 달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봉성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다 올해 5월 귀덕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귀덕리 역시 마을 회관이었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주도좋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사람들이 환경문제라고 하면 어렵고 힘든 일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사람들에게 환경문제를 재미있고 친밀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비치코밍 아트도 그 중 하나였죠.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깨진 유리 조각 등 바다 쓰레기를 주워 액세서리, 액자 등의 제품으로 만드는 비치코밍 아트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재미까지 느낄 수 있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 공연, 레지던시, 페스티벌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바다'는 김일두, 조동희, 재주소년, 장필순, 등 제주바다를 사랑하는 10명의 뮤지션이 참여해 각자의 바라던 바다를 노래한 앨범 작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주바다 레지던시를 통해 바다와 비치코밍



을 주제로 만들어진 4곡의 노래와 프로젝트에 공감한 뮤지션들의 곡을 보태어 음반을 완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매년 5월 바다의 날을 기념해 마켓, 공연, 비치코밍 워크숍 등의 페스티벌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함께 버려진 창고를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빈집프로젝트, 상시 워크숍 등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바다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해녀학교를 다닐 당시 바다에 자주 들어가다 보니 바다 쓰레기가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들어갔다 나올 때 마다 망사리에 플라스틱병을 담아 올 정도로 많았죠. 하루는 우도에 놀러 갔는데 해녀학교 출신이니 놀지만 말고 바다 쓰레기도 주워 오기 위해 포대자루 4~5개를 챙겨 갔는데 포대를 채우는데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친구가 플라스틱을 두드려 보더니 악기 소리가 난다며 악기를 만들어 연주를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이야기했죠. 악기를 만드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악기를 만드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각자의 재주로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재미있게 놀고 싶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바다 쓰레기 에 대한 관심이 제주도좋아라는 팀을 만들었고 반짝반짝지구상회라는 공간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지구상회를 찾아 온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무엇을 얻어 가길 바라나요?

바다 쓰레기, 환경문제를 위한 활동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환경문제에 관심이 생긴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재미있지. 너도 해볼래?'라고 손을 내밀 수 있지만 손을 잡는 것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이란 문제를 좀 더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주는 마을 안에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봉성리, 지금의 귀덕리만 봐도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강연을 비롯해 전시, 공연, 워크숍 등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환경문제를 주로 다루겠지만 동물보호, 비건 등 다양한 주제도 이야기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전시, 페스티벌, 워크숍을 비롯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PEOPLE

제주 바다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야생 돌고래를 찾아 모험을 떠나보고 신비로운 섬섬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편백나무 숲에서 제주 야생차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여행을 해보셨나요? 자연과 공존하며 재미있게 지역을 여행하는 방법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디스커버제주의 김형우, 허진호 대표가 전하는 색다른 제주를 만나보자.



제주를 재미있게 여행하다

디스커버제주

디스커버제주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제주의 자연 그대로를 즐기면서 지역민과 상생하는 구조의 액티비티 플랫폼 회사입니다. 2016년 한국관광공사 예비 관광 벤처로 선정되면서 출발해 5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본가에 의한 관광 사업이 아닌 로컬 주민과 재능 있는 지역민이 참여해 관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개발 없이 자연 그대로 즐기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주가 좋아서요(웃음). 호주나 동남아 등 해외여행지에는 야생 돌고래 탐사, 호핑투어 같은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생태 관광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제주 야생 돌고래 탐사'로 공모전에 참여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스커버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대표 프로그램은 '제주 야생 돌고래 탐사'로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탐사합니다.

제주 바다를 잘 아는 토박이 선장이 돌고래를 잘 관측할 수 있는 지점으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안내합니다. 탐사를 떠날 때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처음에는 안전한가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막상 체험을 하고 나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큰 배보다 낮은 고무보트가 오히려 돌고래를 가까이 볼 수 있어 장점이 많은 배입니다.

디스커버제주에는 다양한 호핑투어가 있는데 최근 선보인 '형제섬 호핑투어'는 환상적인 제주의 경관을 볼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 바위처럼 보이는 크고 작은 섬 2개가 형과 아우처럼 마주보고 있어 붙여진 형제섬을 해녀삼촌과 함께 물질도 체험하며 스노쿨링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죠. 이 밖에도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 속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호핑투어와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고망뉘시 체험', 제주의 밤 하늘과 빛나는 별을 카메라에 찍을 수 있는 '별밤사진관', 현지 선장과 함께하는 '위미 밤바다 한치 배낚시' 등 새로운 제주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역민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내 관광의 경우 관광버스로 많은 사람을 모집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

***비치코밍**
해변(beach)을 빗질(combining)하듯이 조개껍데기, 유리 조각 따위의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것을 뜻한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6길 192
운영시간 목~일 10:00 ~ 17:00 (휴무일 월, 화, 수요일)
홈페이지 www.jaejudojoa.com



보는 식으로 자본가들만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컬 여행이 인기를 얻으면서 로컬다움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저희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민을 매칭하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주 토박이 선장님들과 함께하는 '제주 야생 돌고래 탐사', '볼레낭개 호핑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사랑 받고 있는 디스커버제주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돌고래 탐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선장님의 경우 낚시배를 운영하는데 여름에는 손님이 없는 비수기입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사람들이 낚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수기인데 저희는 여름이 성수기입니다. 서로 필요한 부분이 맞아 함께 상생하면서 관광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죠.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미죠. 제주를 포함해 지역마다 수많은 여행 상품이 존재하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의미 있는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만을 강조하고 재미가 없다면 한 번은 체험하겠지만 돈을 내면서 두 번 세 번 그 여행 상품을 체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저희는 가장 제주다우면서 여행자에게 재미와 의미를 전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스커버제주가 그리는 미래가 궁금합니다.

로컬 액티비티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주에 이어 부산으로 확장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외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을 위해 운영·관리·마케팅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여행 수요가 집중되고 있지만 막상 즐길만한 콘텐츠는 많이 부족합니다. 디스커버제주는 사람들이 제주의 숨겨진 재미를 발견하면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FOCUS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을 끌어당기고
나아가 동네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도시재생 이야기.

로컬 크리에이터, 동네를 바꾸다

많은 미디어에서 '로컬'을 주목한다. 로컬 지향 트렌드는 서울을 비롯해 제주, 부산, 속초 등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큐레이션', '로컬숍' 등 수많은 파생어를 만들어 냈다. 이들은 크고 높은 빌딩이 아닌 작고 세밀한 골목 안에서 자기다움의 취향으로 새로운 공간,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라 불리는 이들의 주무대가 잃어버린 동네 상권이라는 점에서 도시재생과도 맞닿아 있다. 동네 슈퍼마켓 대신 편의점이 분식집 대신 화려한 인테리어의 프랜차이즈 공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권이 아닌 오래된 목욕탕을 리모델링해 카페를 만들고 지역의 양조장을 리뉴얼해 브루어리를 만드는 등 오래된 공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동네 상권 문화를 복원하고 있다. 업종도 다채롭다. 식음료 편집숍, 연필 편집숍, 책방, 수제 맥주집, 멤버십 기반의 살롱 등 다양한 종류의 로컬 상점이 탄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로컬에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올초 140명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뽑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3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지난 7월의 3차 추경에도 로컬 창업자 지원 예산이 들어갔다. 스타트업에만 투자를 했던 벤처투자자들도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
미래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역시 칠성로상점가 일원에서 도시재생형 창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1회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 로컬캠프'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창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지원을 통해 도시재생 창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18명의 참여자들과 비즈니스 및 도시재생 전문가, 건물주 등 50여명이 모여 각 공간과 사업을 연결하고 지역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18명의 참여자 중 우수사업자 4명을 선정하였으며, 칠성로상점가 내 입점 지원 및 상품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로컬 상점의 대부분이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공공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들 소상공인 역시 판매자가 아닌 크리에이터의 자질이 요구되어야 한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로컬 브랜드를 창업한 뒤 로컬 스타트업으로 발전하고, 이어 글로벌 서비스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실리곤밸리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블루보틀처럼.

원도심과 골목을 바꿀 4명의 창업가 이야기

원도심을 달리다

제주랩, 임승범 대표

01 평소 원도심 일대에서 러닝을 자주 즐겼는데, 눈에 들어오는 주변의 모습들이 침체되고 활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늘 아쉬움이 있던 중 달리기를 좋아하는 청년들끼리 모여 이곳에서 땀을 흘리고 에너지를 쏟는 행동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창업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시발점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스타트업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02 얻은 것이 너무 많은데, 크게는 '가능성, 자신감,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노하우와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제시해 주셨는데,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03 현재 저희는 스타트업챌린지를 통해 알게 된 파트너와 함께 협업하여 리사이클링 의류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러닝 콘텐츠를 기획, 운영하고 러닝관광콘텐츠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04 원도심내에서 활동하는 창업가, 체인지메이커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모임이나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탁의 과거와 현재를 잇다

제클린, 차승수 대표

01 처음에는 도시재생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도시재생이 성공할수록 이에 대한 반대 작용으로 기존 저소득 거주자나 영세 상인이 피해를 보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챌린지에 참여한 계기는 센터 관계자들과의 사전 미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었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불어, 기존 로컬 사업자와 협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초심을 잃지 않고 로컬 사업자와 상생을 하겠다는 마음 가짐을 갖는다면 이를 극복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도전 의식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02 사업에 대한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초 제클린은 기존 로컬 세탁소를 협업의 상대라기 보다는 경쟁자로 보고 소멸, 또는 도태 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챌린지 과정을 통해 멘토 여러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경쟁상대인 세탁소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03 기존 사업을 포기하기도 어렵고 병행 하면서 원도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인력 및 자본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클린은 대기업이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이 아니기에 한 걸음씩 나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1차 사업 모델로 원도심 거주자와 상인을 위한 팝업 스토어 형태의 '리노베이션 세탁소 제주-담은 세탁소'를 시작으로 주변의 로컬 세탁소와 오래된 세탁소의 운영자들이 협업해 '세탁소의 미래, 세탁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04 금융 지원과 세제 지원이 함께 되었으면 합니다. 모태펀드 투자 연계도 좋고 은행 같은 금융권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도시재생기금 등의 지원을 금융적으로 받아 도시재생에 투명하게 집행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매칭펀드와 같이 도시재생 담당자 인과 창업자 인이 한 팀이 되어 예산을 집행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제주의 맛

칠성덕장, 이영원 대표

01 평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2018년 원도심 재생 관련 아카데미를 수강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문자로 관련 소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스타트업챌린지에 대해서도 안내문자를 받았는데 마침 생각하던 아이템이 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2 일단은 원도심 재생의 목적이 확실한 챌린지였기 때문에 원도심의 역사와 의미를 듣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스토리텔링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멘토들과 조원들에게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거치면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던 아이템이 더 풍성해지고 구체화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날 있던 모종린 교수님의 강연은 생각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03 원도심은 제주도의 상권과 문화를 아우르는 중심이었습니다. 원도심 인근에는 과거 건입포가 있었는데, 산지향을 거쳐 지금의 제주항이 되었고, 제주의 관문이자 수많은 어선이 드나드는 포구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구도심과 현대를 잇는 도심 역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주의 제철 수산물을 잘 말려 제주의 맛있는 맥주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04 챌린지에서는 아무래도 지원팀들의 사업아이템이 다양하다 보니 구체적인 지원이나 서포트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직접지원 말고도 정책에 대한 정보나 관련 부서의 자문 등의 지원정책도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장 외 별도의 건조장도 만들 계획인데, 에너지 절감이나 건조장 설비 현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고려할 수 있게 지원이 된다면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활교정운동 전문센터

크리스탈테크닉, 양미정 대표

01 특히 진행 면담이 있어 지식센터에 갔다가 우연히 벽에 붙어 있는 홍보물을 보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02 창업에 대한 아이템은 있었지만 사업화에 따른 아이디어가 많이 부족했는데 도시재생 스타트업챌린지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도심에 대한 이해 역시 높아졌습니다.

03 재활교정운동 전문센터를 운영하여 크리스탈테크닉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크리스탈테크닉은 제가 개발한 운동법으로 재활과 교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원도심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체형교정 및 통증완화와 신체기능 향상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4 창업가(에비)들의 만남의 장소 및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후속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 01** 도시재생 스타트업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02** 도시재생 스타트업챌린지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03** 앞으로 원도심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 04** 원도심 활성화와 창업가들의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원하는 지원정책이 있다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

환경과 사람을 이해하는 도시재생

그린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며 생태 공간을 만들어 가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의 도시들. 그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친환경적 가치 구현은 과연 무엇일까? 환경을 고려한 도시재생을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 이야기.

참고 자료 | 김영수, 정의홍, 김우현, 이상일 지음, '지역을 살리는 로컬 브랜딩', 클라우드나인.

뉴욕의 센트럴 파크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로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생태공간이다. 1800년대 중반 맨해튼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시민들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성되었다. 이 공원에는 저수지, 호수, 박물관, 기든, 분수 등의 명소들이 들어서 있으며 다양한 운동시설들도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고 있다.

공원은 형태에 따라 다소 인공적인 조형미를 강조하는 경우와 자연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센트럴파크는 후자에 가깝다. 인위적인 시설 조성을 최소화하고 숲과 잔디밭 위주의 자연적 경관을 유지하는 데 주목했다. 센트럴 파크는 당시 수준을 생각해도 큰 규모의 투자가 진행된 사례다. 현대에 와서는 뉴욕의 로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도시열섬 현상의 완화와 대기 오염 저감, 우수 저장 등의 도시환경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큰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 않지만 도시 내 비오톱Biotopes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노력에서 시작해 로컬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에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오사카의 이즈미사노와 베를린의 공주들의 정원

일본 오사카의 이즈미사노 구릉녹지 사례는 대안적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의 커뮤니티 디자인어 아마자키 료가 참여해 추진한 사업으로 2000년대 후반에 진행됐다. 이 공원 조성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공원의 계획된 부지를 한번에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일부 구역을 시공해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은 계획단계부터 주민과 행정이 의견을 조율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원 내 길을 만들거나 동식물을 조사하는 등 현장 활동과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마자키 료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원 조성에 10억 엔이 들고 운영에 2억 엔이 드는 형태라면(10년간) 이러한 방식은 초기에 2억 엔 가량 예산을 투입해 기초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과 시민활동 지원

에 3억 엔 가량 비용이(10년간) 발생한다고 한다. 공원이나 거리와 같은 공간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간과 참여에 의한 지역 공간 조성 방식은 지역 내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 및 인프라에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베를린의 공주들의 정원도 참여와 경험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생태적 공간이다. 사회적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베를린의 명소로 매년 약 6만 명 가량이 방문한다고 한다. 이곳은 시민들이 직접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 관련된 농사교육을 진행하고 이곳에서 만들어진 재료를 사용해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도 운영되고 있다. 공주들의 정원은 기존의 도심 내 녹지 공간들이 관람이라는 단일목적으로 쓰이는 것에서 탈피해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주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왼쪽) 오사카 이즈미사노 구릉녹지공원 ©대전충남녹색연합 (오른쪽) 베를린 공주들의 정원에서 양봉 체험을 하는 시민들 ©공주들의 정원 홈페이지



**스웨덴의 Bo01 프로젝트와
하마비 모델**

Bo01은 유럽연합이 지정한 첫 번째 생태도시로 '내일의 도시City of Tomorrow'라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내일의 도시라는 비전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미래도시, 폐기물 처리 시스템, 녹지대 조성, 친환경 교통, 친환경 건축 등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현실화된다. Bo01은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지침으로 만들었다. 또한 시설물에서 재활용 가능한 재료의 사용과 디자인 등의 상세지침과 인간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 지침 등을 두고 있다. 생태적인 로컬 인프라는 도시설계와 건축설계

측면에서 많이 고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녹지 공간의 확보와 친환경 교통시스템 등 도시 구조적인 측면과 친환경건축과 같은 건설 측면의 이슈 등이 주로 많이 고려된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생태적인 가치가 추구될 수도 있다. 스웨덴의 하마비 허스타드도 '생태주거'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 환경적 지속성을 목표로 토지이용과 주거계획, 에너지, 교통 등에서 다양하게 접근을 했다. 도심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진공 시스템과 연결되어 쓰레기를 모아서 재활용 혹은 재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동 폐기물 집하 시스템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 순환 모델인 '하마비 모델'을 통해 에너지, 쓰레기, 수자원과 하수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외에도 교통이나 주거단지 조성 등에서도 세밀하게 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 하마비는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어졌다. 친환경적인 공간은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요소다. 높고 화려한 건물이 아닌 우리 주변의 다양한 환경을 보존하면서 주민의 삶을 보듬어 주는 도시재생은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란 사실을 잊지 말자.

2019년 제주시 원도심 근·현대 사진수집 아카이빙 사업

흑백 사진 속 제주 사람들과 생활 모습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사람들.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제주의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시절 제주의 역사를 간직하기 위해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의 근·현대사진을 수집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만나보자.



친환경 도시를 구현한 도시 말뚝의 여유로운 오후 모습 ©visitswede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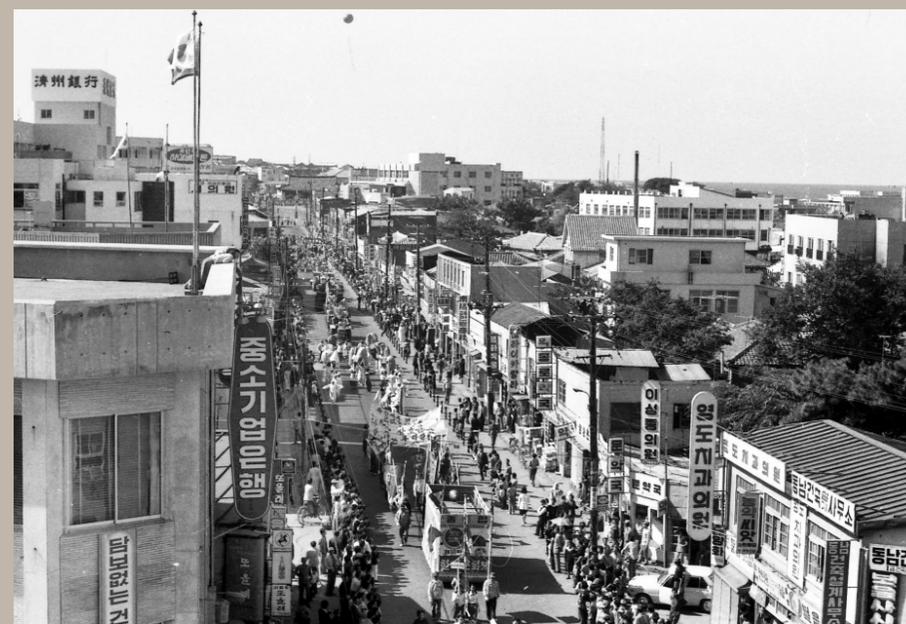


말뚝의 상징인 타닝토르소 건물과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시민 ©visitsweden.com



제8회 한라문화제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969년

제9회 한라문화제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970년



제7회 한라문화제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1968년



풍물. 남문로터리 인근. 서재철, 1969년

마을행사. 제주양로원. 서재철, 1968년



마을행사 기념사진.
제주양로원. 서재철,
1968년



작은 건축이 마을을 바꾸다 김영수도서관,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수상

김영수도서관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에서 공공건축 부문 대상(국무총리표창)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해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을 보급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김영수도서관은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9억원(국비 4.5억원, 도비 4.5억원)을 들여 조성한 공간이다. 지난 2018년 제주북초등학교 도서관과 유휴공간이었던 옛 관사와 창고를 리모델링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마을어린이도서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제주도 공공건축가인 탐라지에건축사사무소 권정우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으며, 시공은 ㈜지엔이 맡아 공사를 시행했다. 최초 사업의 의견수렴 및 기획 단계부터 건축사가 참여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기본구상의 내용과 학교, 학생,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기획(주민주도)-설계(사용자참여)-시공(정보공유)-운영(사용자 주도 운영조직)' 전 과정에 건축사가 참여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세밀하게 추진했다.

365㎡ 규모(대지면적 1만6148㎡) 2층 건물의 외관은 김영수도서관의 가치와 기억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보존하였고 내부는 한옥 목구조로 설계하여 찾는 이마다 감탄을 자아내며 원도심 대표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전통 한옥의 미를 살리기 위해 고재를 구하려 육지부를 수소문하고, 경복궁 수리에 참여했던 대목장(大木匠, 큰 건축물을 짓는 목공

명인)을 어렵게 섭외해 골격을 만들었다. 상량문에는 아이들의 희망을 담은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고 한옥방 창호에 한지를 직접 붙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살렸다.

제주도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제주도교육청, 제주북초등학교, 지역주민들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여태껏 없었던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이 한 공간에서 같이 운영되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였다.

마을도서관은 전문사서와 함께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양성된 도서관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김영수도서관친구들', 제주대학교 교육봉사동아리 '보통사람들' 및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해가고 있다.



음식으로 이해하는 제주 이야기 제주 원도심 음식문화 특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제주인의 식생활은 자연 재해와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하면서 이루어낸 섬 문화의 결정체이다.

제주의 혹독한 자연환경은 농작물의 재배 방법과 작목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고 이로 말미암아 식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제주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 원도심 음식문화 특화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 9월 15일 ~ 11월 24일

교육장소 케왓(제주시 관덕로 17길 27) 및 원도심 일대

모집인원 10명

모집대상 - 모관지역 내 부녀회

- 원도심과 음식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

- 원도심 방문 예정에 있는 관광객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주민 및 생활권자 우선접수

신청방법 케왓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bit.ly/3i1DcN8>)

문의 (주)베지근 연구소 070-7793-0685

교육일정

주제	교육일	시간	강의명
제주국밥	10.13(화)	10:00~12:00	국밥과 밥, 국밥에 대한 요리, 음식이야기
	10.13(화)	12:00~14:00	제주 원도심 국밥 컬리너리투어 1
		14:00~16:00	제주 원도심 국밥 컬리너리투어 2
제주 산업음식의 시작	10.20(화)	11:00~15:00	인문학 : 일제강점기 제주의 식품산업의 모습 쿠킹클래스 : 스텝무스비, 어단
	10.27(화)	10:00~12:00	제주 일제강점기 통조림 산업이야기
	10.13(화)	12:00~14:00	제주 원도심 식품산업 컬리너리투어 1
14:00~16:00		제주 원도심 식품산업 컬리너리투어 2	
탐라순력도에 담긴 진상의 역사	11.3(화)	11:00~15:00	인문학 : 탐라순력도에 담긴 진상의 역사 쿠킹클래스 : 전복초, 감굴양갱
	11.10(화)	10:00~12:00	탐라순력도 영인본에서 살펴보는 궁중음식과 제주 특산품
제주 원도심 오래된 식당	11.17(화)	11:00~15:00	인문학 : 제주외식업 60년사 쿠킹클래스 : 상애떡, 오메기떡
	11.24(화)	10:00~12:00	원도심 오래된 식당의 이야기
		12:00~14:00	제주 원도심 노포 컬리너리투어1
		14:00~16:00	제주 원도심 노포 컬리너리투어2



꽃과 나무의 시간을 선물하세요 제주책방 활성화 프로그램 '식물생활'

그 동안 관상용, 공기정화, 인테리어, 식재료 등으로 이용되던 식물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마치 반려동물처럼 사람들에게 정서적 교감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반려식물'이란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식물에 대한 관심과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로 관련된 서적 및 수업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이에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도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을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은 원도심에서 식물과 생활하기란 주제로 식물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및 도민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식물이 필요한 이유', '식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이야기하자', '꽃수선_반려식물 워크숍', '식물관찰_표본제작', '식물관찰_세밀화 그리기', '식물놀이' 총 8강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월 25일 수업 결과물을 공유한 후 11월1일부터 11월 7일 총 7일간 제주책방에서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전시는 무료 관람으로 누구나 방문하면 관람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주 일요일 오후 2:00 - 오후 5:00
9. 6. 일회 <식물생활> <취미한 수업> 상영회
9. 13.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책모임
9. 20. 꽃수선_반려식물 워크숍
9. 27. 꽃수선_꽃의 친구 만들기
10. 4. 식물놀이_표본제작
10. 11. 식물놀이_세밀화 그리기
10. 25. 식물놀이_식물표본을 제작
11. 1. 11. 7. 결과 전시

식물생활

제주책방
제주시 관덕로 17길 27-1
찾아가는 무료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도시재생사업부

※당에서 판매를 모집, 단 제주시 원도심 거주자 우선 선발
※당에서할 경우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JEJU URBAN REGENERATION CENTER

